

시론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차 소부장단지를 광주로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지난 3월20일 광주 미래차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정부 광주시 자동차산업과 각계 관계자들이 국가 미래차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계획을 선포한 날이었다.

이날 국내 여느 행사와 달리 구글과 아마존 CEO들이 축하와 격려를 보낸 것은 매우 특별했다. 폴 윌슨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일본지역 공공부문 총괄이사는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 및 버스 서비스, 안드로이드 자동차, 구글 지도를 활용한 교통부문의 기술 혁신을 소개하고 '광주 인공지능 미래차와 함께하겠다'고 직접 참석해서 축하했다. 웬디 바우어 아마존 웹서비스 글로벌 자동차 사업부문 총괄대표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광주 미래차와 성공적인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미래차 대기업 CEO들이 도대체 왜 한국의 광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축하와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했다. 광주가 국가인공지능대표 도시이고 미래자동차의 전장이 크다고 보기 때

문이다. 거꾸로 이런 축하 자체가 미래차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예측이나 증거이기도 하다. 객관적 여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예지가 미래를 만든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정부에 반도체특화단지 신청했고, 또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청했다. 각각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전국 각 곳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반도체단지와 미래차 소부장단지 지정을 앞두고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할 바를 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미래전략산업 추진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인가.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려할 지역은 어디인가.

셋째,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이행이 추가된다.

먼저 지금 세계는 '기술진보 가속의 시대'다. 그 중 디지털대 전환 환경경관소중립 글로벌공급망재편이 핵심추세다.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산업에 승부를 걸고, 국가 미래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이런 국가첨단 미래전략산업의 요충지다. 광주는 자동차 전자 광산업을 키워온 바탕위에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 미래차국가산단으로 전남은 우주산업 2차전지산업 에너지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중

이다. 반도체나 센서 등은 미래차 도심항공 에너지산업의 핵심이고 광주·전남의 현재 첨단 기술과 기업, 인력을 연계해 반도체 미래차 단지가 조성되면 서로 시너지도 생기고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광주·전남은 국가전략차원의 첨단산업 기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적 정책으로 종합적 국토균형과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서남권 동남권 중부권은 수도권과 함께 세 개의 발전축이며 그 중 서남권 광주·전남이 반도체와 미래차 특화를 하게 되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신아시아태평양시대의 공급망 고두보를 만들 수 있다. 반도체 미래차 소부장은 광주 AI, 한전 등 전남 에너지, 광양·여수의 경량철강과 2차전지, 광주·전북의 자동차산단 벨트를 잇는 역사에 남을 서남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AI반도체와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7대공약이자 정부 15대 정책과제로 이번 기회는 약속이행의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다.

광주·전남 발전만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광주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반도체 단지 성공은 이미 구글과 아마존이 내다보고 있지 않나. 광주·전남 각계가 총력을 기울일 것 요청한다. 5·18기념식사에서 산업적 성취로 계승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社說

김대중재단 본격 활동에 광주·전남 적극 동참을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이 DJ의 유산과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철학과 사상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대회에는 동고동계를 비롯해 정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2024년 1월6일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시·군·구 지회도 설립된다.

김 대통령의 지도 이념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민주주의 후퇴, 경제, 남북의 평화 위기 등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데 뜻을 모아 재단은 태동했다. 실제로 재단은 생애와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가 남긴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각종 기념사업을 비롯한 아카데미, 연구 및 봉사, 역사탐방, 국제연대 등을 펼칠 계획이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세우고 현실 정치에서 실천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지도자로 꼽힌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40여 년의 투쟁 역경 가운데 다섯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한 투사였다.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에 성공했으며 자신을 탄압한 정적들을 용서하고 국민 통합을

통해 IMF 외환위기 극복을 이끌었다. 남북정상 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화해 협력의 길을 열었고, '김대중-오부처 선언'으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반도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평화에 이바지한 시대의 거인으로, 노벨평화상까지 한국인으로서 처음 수상한 바 있다.

2000년 12월10일 노벨상위원회는 '확고한 민주 정부의 수립과 한국에서의 내부적 화합 증진, 강력한 도덕적 힘을 바탕으로 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에 맞서 동아시아 인권수호자의 역할, 햇볕정책을 통해 50년 이상 지속된 남북한 간의 전쟁과 적대관계의 해소, 인근 국가들, 특히 일본과의 화해 등을 적시했다.'

김 대통령이 현대사에 남긴 영향력은 심대하다. 송고한 삶과 시대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재단은 민주·평화·인권의 김대중 정신을 전파하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재단이 김 대통령의 고향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역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선양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다.

尹정부 '공정 수능' 속의 공론화가 먼저

대통령실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 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능을 5개월여 앞두고 고3 교실 등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물수능' 우려 등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중·상위권은 불과 한 문제로 시험을 망치고 등급이 갈리게 된다며 울상짓고 있다. 수험생들은 어지간히 당황스럽다. 올해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6월보다 평이해질 가능성이 높다. 6월 모의평가 문항을 문제 삼아 교육부 담당 국장도 교체됐으며, '공정 수능'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감사도 예고된 상황이다.

교육 개혁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선불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수능은 국어·수학·영어·탐구 어떤 과목 하나도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논란인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어떤 경우라도 애꿎은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 공교육을 강화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라면 '방공명' 수준의 사교육 근절 대안부터 제시하는 게 옳다. 적나라한 폐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지만 해법 또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인 때문이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 풀어야 할 민감 사안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만 5세 입학'을 추진했다가 철회했던 사실을 곱씹었으면 한다.

올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출제 방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수능은 진학과 진로를 위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해마다 난이도를 둘러싸고 이슈가 되는 이유다. 출제 기조가 일순간 바뀐다면 정말 큰 일이다. 정치권에서 파문이 일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도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필요한 개혁이라면 이해 상충에는 속의과정,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렸다. '백년대계'임을 명심하자.

기고

'마음 치유 IN NATURE' 를 꿈꾸며



박은경
광주송일고등학교 상담실장

자연친화적인 삶보다 문화친화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자평하는 내가 요즘은 꽃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꽃사진을 찍고 있다. 체널을 돌리다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접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 프로그램을 누가 보나 의아해하며 체널을 돌리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고 있다. 그런 나를 보며 '사람은 평생 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자연이 주는 회복의 힘은 나이가 들면서야 깨닫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작년부터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자율 교육회복' 프로그램은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 정서, 사회성 등의 회복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으로의 궁극적 회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내·외 체험활동, 사제동행활동, 또래활동, 건강증진활동, 교직원 회복활동 등 학교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지향한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고민하다가 자연을 접하며 보는 위로와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원에 치료 활동을 계획하게 됐다.

원예치료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정원 가꾸기나 식물 재배, 꽃과 식물을 이용한 작업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하며 꽃과 식물을 만지고 향기를 맡으며 심신의 회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기철 외(2006)은 원예치료의 특성에 대해 생명을 매개체로 해 식물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식물과의 교감을 갖게 되며 식물을 통해 오감을 자극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원예치료는 '창조적 파괴'가 가능한데 이는 장식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물을 자르고 꽃과 열매를 따는 등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가 단순히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 누름꽃, 열매 등을 이용해 다양한 창작품을 만들어 파괴를 파괴가 아닌 예술로 승화시킨다고 했다. 이번 학교자율 교육회복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옹기 수반 정원꾸미기를 할 때 작은 나무들을 소분하고 화분의 깊이에 맞게 나무들의 뿌리를 짧게 자르고 불필요한 잎들을 제거하면서 인간이 인간의 욕구대로 식물을 함부로 재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옹기 수반에 식물들을 심고 아름답게 작은 정원을 만들어 진 것을 보며 '아~ 파괴로 보이는 파괴가 사실은 파괴가 아닌 예술로 승화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Mattson(1997)은 정원 활동이 상당한 운동

효과가 있으며, 다이어트와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고 적절한 원예 활동(정원 가꾸기, 꽃꽂이 등)들이 감정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원예 활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작용 없는 운동 중의 하나이며, 활동 후속으로 발생하는 생산물을 통해 자긍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생산물을 나눔으로써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한다고 했다. 나 역시 옹기 수반 안에 녹색의 식물과 검정색의 숯이 어울리도록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식물을 심고 이리저리 모양을 확인하고 그 예쁜 방향을 찾으려다 보니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함께 원예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작업 활동을 돌보며 격려하고 칭찬하며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역시 돈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완성된 옹기 수반 정원을 확인해 보니 내 작품보다 더 맛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지만, 많은 시간 고민하고 노력하며 만든 '나의 정원'이기에 내 옹기 수반 정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반려식물이 돼 있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대면으로 하는 집단 프로그램을 계획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이번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뻐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정업무와 수업으로 지친 교직원들의 마음을 격려하며 자연 속에서의 작은 쉼표를 제공하고 싶다.

독자투고

'저탄소 농업'으로 두 마리 토끼 잡자

최근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해 발표했다. 이 목표대로면 2030년까지 우리 농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7.1% 줄여 1800만톤으로 줄여야 한다. 그런데 농업은 농산물 생산, 가축사육 등 식량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다.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의 약 30%, 즉 기온 0.5°C 상승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메탄 전체 배출량의 43%가 농업에서 발생한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벼 등 농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을 줄이면 되지만, 이는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식량생산 확보 문제와 상충된다. 한마디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식량생산 확보는 마치 시소게임처럼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

계, 즉 이율배반적인 관계인 것이다. 농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상반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행 농업은 풀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 요지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놓인 현재의 관행 농업을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저탄소 농업이란 농업, 축산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대기 중의 탄소를 토양이나 식물체로 흡수를 촉진하는 농업이다. 주요 정책으로 비료나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스마트 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영농과 가축 사육관리도 확대된다.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 단계를 줄여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로컬푸드 확대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농촌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사항도 담겨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량생산은 필요불가결한 명제이고, 필연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기후위기와 식량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난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한 각종 계획을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 정부와 지자체, 기업, 학계 등이 같이 지혜를 모아 저탄소 농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임규현·농협청년교육원 교수)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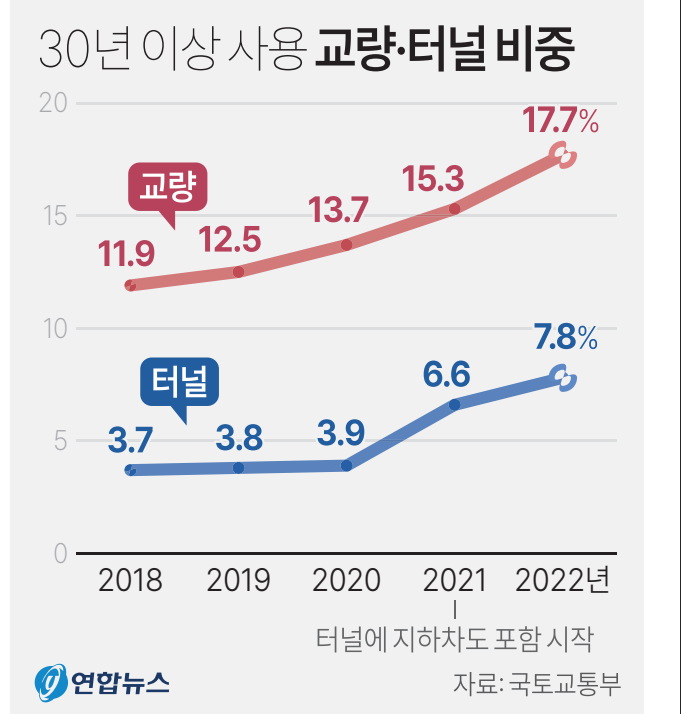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전국도로 교량 17.7%·터널 7.8%는 '사용연수 30년 이상'

전국 도로에 설치된 교량의 17.7%, 터널의 7.8%는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9일 '2023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용연수가 30년 이상인 교량은 6천825개로 전체의 17.7%에 달했고, 터널은 291개(7.8%)였다.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교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1.9%, 2019년 12.5%, 2020년 13.7%, 2021년 15.3%,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터널은 2018년 3.7%, 2019년 3.8%, 2020년 3.9%, 2021년 6.6%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 사용연수는 교량 20.4년, 터널 14.4년으로 집계됐다.

전국 도로의 교량·터널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교량은 3만8천58개, 터널은 3천720개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교량은 1천520개(4.1%), 터널은 75개(2.1%) 각각 늘었다. 또 지난 10년간 교량은 9천408개(32.2%), 터널은 2천61개(12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년 이상 사용 교량·터널 비중
터널에 지하차도 포함 시작
자료:국토교통부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